

영화 <어댑테이션(Adaptation)>을 통해 본 각색과 글쓰기의 문제

김중철*

1. 들어가는 말
2. 영화 <어댑테이션>에 대하여
3. ‘난초’를 통해 본 열정과 욕망
4. 인물 관계와 설정의 의미
 - 4.1. 찰리 카우프만과 도널드 카우프만
 - 4.2. 수잔 올린과 존 라로슈
 - 4.3. 찰리 카우프만과 수잔 올린
5. 이야기의 전환과 소설 <난초도둑>
6. 나오는 말

국문요약

이 글은 영화 <어댑테이션>을 통해 각색과 글쓰기의 의미를 살펴본 것이다. 영화 <어댑테이션>은 제목이 가리키는 바대로 각색과 관련되며, 소설을 시나리오로 각색해야 하는 일을 맡게 된 주인공 찰리 카우프만이 겪는 난감함과 곤경을 줄거리로 하는 이야기다. 극적 요소 없이 난초의 이야기로만 가득한 원작을 각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찰리에 비해 쌍둥이 동생 도널드는 자유분방하게 자극적이고 오락적인 시나리오를 내놓는다. 도널드의 흥행 위주의 이야기를 비난하던 찰리는 결국 도널드의 조언을 받아들여 이야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그러던 중 원작소설의 작가와 이야기의 모델 사이에 수상한 비밀을 발견하게 되고

* 안양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그들을 추적하면서 영화 〈어댑테이션〉은 이전까지의 사유적이며 철학적인 이야기의 성격에서 벗어나게 된다. 역동적인 추격신과 자극적인 애정 행각, 마약과 총격신 등 영화의 중반 이후의 이야기 전개는 지극히 할리우드적인 관습을 따르는데, 이는 그동안 찰리가 혐오해오던 상업주의적 성격의 것이다.

영화 초반 찰리는 원작의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원작 그대로의 주제와 무게를 지키려는 그의 소신은 오히려 시나리오로의 각색 작업을 방해하고 자유로운 글쓰기를 억압한다. 원작에서 벗어나고 싶은 찰리의 무의식은 쌍둥이 동생 도널드의 분방한 성격과 자유로운 글쓰기의 장면으로 형상화된다. 그런 점에서, 상반된 성격의 쌍둥이 형제라는 설정은 자기만의 예술적·철학적 이야기 세계를 지키려는 욕망과 상업적 오락 중심의 이야기를 취하고자 하는 욕망 사이에 놓이는 글쓰기의 갈등과 고민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장치가 된다. 이야기를 만드는 작가와 그 이야기의 모델, 원작의 이야기와 각색 이야기 사이의 미묘하고 복잡한 관계 구도를 영화 〈어댑테이션〉은 흥미롭게 보여준다. 찰리는 시나리오를 위한 각색 과정에서 결국 스스로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는 사회와 세상에 대한 그 나름의 ‘각색’ 혹은 ‘고쳐/다시 쓰기’의 의미로 해석된다. (주제어 : 〈어댑테이션〉, 〈난초도둑〉, 찰리 키우프만, 글쓰기, 각색, 극작가, 소설의 영상화, 매체 전이, 작가적 욕망)

1. 들어가는 말

글을 쓴다는 것은 무엇일까? 글쓰기에 대한 담론들이 넘쳐나는 중에도 이 물음에 대한 명료한 답을 찾기란 여전히 어렵다. 글의 종류에 따

라, 목적이나 의도에 따라, 입장과 관점에 따라 글쓰기의 의미는 당연히 달라질 터이다. 통칭으로 ‘글’이라 불릴 수 있는 수많은 형태와 양상들이 있으며, 여기서 그것을 일일이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두 가지 형태의 글쓰기, 창작과 각색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새로운 이야기의 창작과 기존 이야기에 대한 변형에 관한 것이다.

각색이란 기존의 원작에 대한 변형을 말한다. 주로 매체의 전이에 따라 행해지는 내용상·외형상의 변화를 말하지만, 매체의 차이가 아닌 수행자(발화자)의 입장이나 태도에 따라 일어나는 변화의 과정, 혹은 그런 작업 자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이 글은 각색 글쓰기에 관한 것이다. 즉 원작에 변형을 가해야 하는 이가 겪게 되는 원작(자)과의 관계와 그 각색 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영화 <어댑테이션>¹⁾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영화 <어댑테이션>은 그 제목이 뜻하는 대로 ‘각색’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이 글은 그 점에 착안하여 <어댑테이션>에 접근할 것이다.

영화의 주인공 찰리 카우프만(니콜라스 케이지 扮)은 소설의 각색을 의뢰받은 시나리오 작가다. 그는 영화계에서 나름의 명성과 자신만의 이야기 세계를 구축하고 있으면서 상업주의 오락성 이야기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각색해야 하는 소설의 이야기가 영화로 옮기기에는 난감하다는 점이다. 영화 <어댑테이션>은 주인공 찰리 카우

1) 스파이크 존즈 감독과 찰리 카우프만 각본의 2002년 작품으로, 아카데미 남우조연상, 골든글러브 남우여우 조연상, 베를린영화제 은곰상 등을 수상하였다. 찰리 카우프만은 <존 말코비치 되기>, <이터널 선사인> 등의 각본을 썼으며, <시네도키, 뉴욕>을 직접 연출하기도 하였다. <어댑테이션>은 복잡한 내러티브의 중층적·재귀적 구조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국내에서는 몇 비평문이나 리뷰 외에 본격 학술연구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작품이 갖는 복잡한 구조와 다층적 해석의 문제성은 그만큼 다양하고 풍부한 논의의 여지를 품고 있으나 여기서는 ‘각색의 글쓰기’라는 데에 초점을 두어 영화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프만을 통해 작가들이 겪는 고민과 갈등, 유혹을 이야기한다. 원작(소설) 그대로의 이야기를 지키느냐, 상업적 흥행을 위해 변형시키느냐의 기로에 놓인 작가의 이야기라고 할 만하다. 그러면서 영화는 각색이라는 특정한 행위나 작업의 고민을 넘어 글을 쓰는 이 대개가 갖는 불안과 강박, 두려움과 중압감을 잘 담아낸다.

이는 어쩌면 글을 쓰는 이들에게 근본적인 질문일 수 있다. 자신에게 충실한, 정직하고 진실된 글쓰기란 무엇인가? ‘글’과 멀어지고 있는 듯한 현시대의 가볍고 감각적인 세태에 비추어 본다면, 그런 세태에 부응하는 변화를 따라야 할 것인가, 기존의 고답적이고 철학적인 주제의 글을 지켜야 할 것인가? 과연 작가는 자신의 내부에 어떠한 목소리를 숨기고 있는가? 대중들이 원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들에게 잘 읽히는 글을 쓸 것인가, 아니면 그들과의 거리를 감수하면서도 자신만의 ‘진지한’ 이야기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 영화 〈어댑테이션〉은 이러한 작가들의 심리적 강박과 관련하여 질문을 던지게 한다. 요컨대 영화 〈어댑테이션〉은 이야기를 만드는 이들, 더욱이 원작의 이야기에 손을 대어 또다른 이야기로 ‘고쳐 써야’ 하는 이들이 갖는 고민과 갈등을 보여준다.

2. 영화 〈어댑테이션〉에 대하여

영화 〈어댑테이션〉은 수잔 올린(Susan Orlean)의 논픽션 소설 〈난초도둑〉²⁾에 관한 영화다. 즉 〈난초도둑〉을 각색하여 영상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그 소설을 소재로 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영화의 주인공은 〈난초도둑〉을 영화로 옮기기 위한 각색 작업을 맡은 시나리오

2) 수잔 올린, 김영신·이소영 역, 원제 'The Orchid Thief', 현대문학, 2003.

작가 찰리 카우프만이며, 그가 이 소설을 각색하려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갈등과 사건들을 영화는 이야기로 담고 있다.

찰리 카우프만의 고민은 소설 <난초도둑>이 영화로 각색하기에 전혀 극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인물간의 갈등이나 사건의 전환, 기승전결의 흐름, 심지어 대화조차 거의 없어 극적인 묘미를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난초들의 수많은 종류와 난초 채취의 역사, 난초를 둘러싼 사건들과 난초광들의 모험을 소개하고 있을 뿐이며, 더욱이 독자에게 직접 들려주는 특이한 서술방식과 작가 자신의 사색적 관념의 표출은 영화로 각색하기에 난감하기 이를 데 없다.³⁾ 그런 소설을 각색해야 하는 시나리오 작가의 갈등과 곤혹감을 보여주는 것이 영화 <어댑테이션>이다. 영화의 주인공 찰리 카우프만은 이 영화의 실제작가(Charlie Kaufman)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그는 자신을 모델로 삼고 있으며 따라서 영화는 다분히 메타적이다.

캐릭터의 변화도 흥미로운 사건도 극적인 전개도 없이 난초수집가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밋밋한’ 소설 <난초도둑>을 영화로 제작하기 위한 시나리오 작가의 강박감과 불안감을 보여주는 이 영화는 주인공 이외에도 실존 인물들의 실명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점에서도 흥미롭다. 로버트 맥키(브라이언 콕스 扮), 수잔 올린(매릴 스트립 扮), 존 라로슈(크리스 쿠퍼 扮) 등의 실명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배우들이 카메오로 등장하기도 한다. 반면에 허구의 가공인물인 도널드 카우프만은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 공동작가로 버젓이 이름이 올라가 있기

3) 예를 들면 이런 대목들이다. “파카하치 스트랜드로 뭔가를 찾으러 가야 하다면, 당신은 그것을 몹시 탐내야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수잔 올린, 위의 책, 61쪽.), “당신이 만일 스스로 어떤 것에 푹 빠진다면, 즉 어떤 공동체, 직업, 취미 등에 지나치게 몰입한다면, 머지 않아 당신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려고 애쓰게 될 것이다.”(수잔 올린, 위의 책, 386쪽.)

도 하여, 영화는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모호하게 흐리고 있다.⁴⁾

영화의 이러한 성격은 첫 장면, 찰리 카우프만의 바로 직전의 작품 〈존 말코비치 되기〉의 촬영현장 장면에서부터 잘 드러나는데, 그 장면은 다큐멘터리 형식을 띠고 있어 이 영화가 허구가 아닌 듯한 인상을 다분히 자아낸다.⁵⁾ 그런데 그 촬영 장소에 있던 찰리는 정작 그 작품을 쓴 작가이면서도 다른 스태프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어슬렁거리다가 쫓겨나는 우스꽝스런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의 소심하고 다소 폐쇄적인 성격이 잘 드러나는 장면인데, 한편으로는 이 영화가 작가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임을 알려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이렇게 영화 〈어댑테이션〉은 첫 장면에서부터 픽션과 논픽션의 혼종 형식을 띠면서 허구와 사실 사이의 경계에 놓여 있는 듯한 모호하면서도 흥미로운 성격을 잘 보여준다.

찰리 카우프만이 각색해야 하는 소설 〈난초도둑〉은 신문기자 수잔 올린의 논픽션 소설로, ‘유령난초’를 찾아다니는 존 라로슈(John Laroche)에 대한 이야기다. 〈뉴요커〉의 기자인 수잔 올린은 플로리다에서 일어난 난초의 불법채취 사건을 접하던 중에 존 라로슈라는 인물을 알게 되고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과 기이한 행적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녀는 난초광 중에서도 괴짜라고 불리는 그에게서 오히려 놀라운 열정과 집념을 보게 되고 그것에 매혹되어 그의 삶을 이야기로 옮겨 〈난초도둑〉을 쓴다. 그러나 실제 〈난초도둑〉의 이야기는 존 라로슈의 삶과 모험 보다는

4) 이러한 경계의 모호함은 소설 〈난초도둑〉에서부터 비롯한다. 주인공 존 라로슈는 플로리다와 인디언 마을의 경계선에 사는 존재로 설정되는데, 이는 그가 문명과 야생의 중간, 논픽션과 픽션의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또한 그가 찾고 있는 ‘있는 듯 없는’ 유령난초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5) 존 말코비치, 존 쿠삭, 캐서린 키너 등 그 촬영장에 있었던 실제 배우들이 모두 등장한다. 단, 실제의 찰리 카우프만은 등장하지 않으며 그 역할을 맡은 니콜라스 케이지가 출연한다.

앞서 언급했듯 난초에 관한 온갖 정보와 지식들로 가득하다. 난초의 생태와 채취의 역사, 난초를 둘러싼 각종 사건들을 담고 있는 이 소설의 메시지는 결국 인간의 욕망과 열정에 대한 것이다. 맹목적 집착과 어두운 열정에 휩싸여 “높이라는 혼돈의 땅에서 유명난초를 찾아 헤매고 있는”⁶⁾ 난초광들을 통해 인간의 탐욕과 광기, 헛된 욕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설의 철학적 사유를 시나리오로 옮기려 하는 데 찰리 카우프만의 고민이 있다.

영화 <어댑테이션>은 초반에 찰리 카우프만이 <난초도둑>을 각색하는 과정에서 고민에 빠지는 내용과 더불어 수잔 올린이 <난초도둑>을 써가는 과정이 잠깐의 교차 편집을 통해 이어진다. 즉 영화는 초반에 두 가지 글쓰기 양상을 흥미롭게 대비시키고 있다는 것인데, 하나는 원작을 고치고 변형해야 하는 각색을 위한 글쓰기이며, 다른 하나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담아내려는 논픽션 글쓰기이다. 이때 영화는, 좀처럼 글을 쓰지 못하는 찰리의 모습과 열정적으로 글을 써내려가는 수잔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대비시킨다. 존 라로슈의 삶과 행적을 따라 수월하고 거침없이 글을 써가는 수잔과 달리 시름 가득한 표정으로 타자기만을 쳐다보는 찰리의 모습은 이야기의 소재(모델)가 주는 무게에 짓눌린 지난한 글쓰기 작업의 시각적 형상이다.<<그림 1, 2> 참고)



<그림 1>



<그림 2>

6) 수잔 올린, 위의 책, 425쪽.

영화가 보여주는 또다른 흥미는 찰리의 쌍둥이 동생 도널드 카우프만(니콜라스 케이지 1인 2역)의 설정이다. 찰리가 첫 줄도 쓰지 못하고 신경쇠약에 걸리는 반면, 활달하고 유쾌한 성격의 도널드는 할리우드의 상업 영화 공식에 맞춰 날림으로 쓴 시나리오 한 편으로 단숨에 거액을 챙긴다. 그동안 도널드를 무시해 왔던 찰리는 동생에게 〈난초도둑〉의 각색 작업을 도와줄 것을 청하고 도널드는 책의 저자 수잔 올린과 이야기의 모델인 존 라로슈 사이에 비밀과 음모가 있음을 감지해 낸다. 마침내 쌍둥이 형제는 그들의 비밀을 파헤치게 되는데 쫓고 쫓기는 추격전 끝에 도널드와 존 라로슈는 죽음을 맞게 되고, 그런 중에 찰리는 그동안의 고민과 시름을 해결하게 된다는 게 영화 〈어댑테이션〉의 이야기다.

이처럼 영화 〈어댑테이션〉은 중반 이전과 이후의 성격을 달리 한다. 중반까지는 찰리 카우프만과 수잔 올린의 글쓰기가 교차를 이루면서 주로 각색의 부담을 안고 있는 찰리의 심적 고민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중반 이후 영화는 찰리와 도널드의 상반된 성격과 작법상의 갈등을 중심으로 할리우드 대중영화의 상투적인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양상이다. 사뭇 고답적이며 사유적이던 중반 이전의 이야기에서 중반 이후로의 이러한 돌연한 전환은 언뜻 그 이질적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주는 메시지의 전달에 의미있는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하나의 장을 두어 별도로 논하고자 한다.

3. ‘난초’를 통해 본 열정과 욕망

수잔 올린이 존 라로슈의 삶을 이야기로 옮기려는 이유는 그녀 자신이 “뭔가를 간절하게 원하게 되기를”⁷⁾ 바랐기 때문이다. 영화에서도 다

음과 같은 수잔 올린의 대사는 이를 그대로 보여준다.

“나도 난초처럼 열정 쏟을 게 필요하다. 하지만 내겐 그런 열정의 대상이 없다. 내게 있는 유일한 열정이란 건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다는 것 뿐.”(00:26:14)

존 라로슈에게 열정의 대상이 난초라면 수잔에게 그 대상은 다름 아닌 존 라로슈라는 인물이 된다. 이처럼 작품에서 존 라로슈는 열정을 상징하는 인물로 형상화된다. 수잔 올린이 그에게 매혹되었던 것은 유명 난초를 얻기 위해 늪지대를 찾아다니는 그의 열정 때문이었고, 찰리 카우프만이 수잔 올린의 책에서 발견한 것도 존 라로슈를 향한 그녀의 ‘뜨거운’ 관심이었다.

따라서 영화 <어댑테이션>에는 세 가지의 열정/욕망이 그려진다. 첫째, 늪에서 유명난초를 찾아다니는 존 라로슈의 열정/욕망, 둘째, 그에 대한 이야기를 쓰기 위해 존 라로슈를 쫓아다니며 취재하는 소설가 수잔 올린의 열정/욕망, 셋째, 그녀의 소설을 영화로 옮기려 하는 시나리오 작가 찰리 카우프만의 열정/욕망이다. 수잔 올린은 존 라로슈에게서, 찰리 카우프만은 수잔 올린에게서 “열정적으로 무언가에 관심을 쏟는다는 것”에 대해 보고 싶어 한다.⁸⁾ 그래서 수잔 올린은 존 라로슈의 삶을 취재하고, 찰리 카우프만은 수잔 올린의 행적을 궁금해 한다.

이때 수잔 올린과 찰리 카우프만의 공통점은 자신의 재능(글쓰기)을 투자할 만한 외적 표상을 그리워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 표상에 대한 확대 해석, 혹은 과도한 치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실상, 위의 ‘첫째’ 즉 존 라로슈의 열정/욕망은 수잔 올린의 과도한 해석일 수 있으며, ‘둘째’ 역시 수

7) 수잔 올린, 위의 책, 71쪽.

8) 영화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 ‘열정’을 형상화하는데, 영화에서 강연을 하는 시나리오 작가 로버트 맥키 역시 그의 한 예가 된다. 그의 열정적인 강연은 소심한 성격의 찰리마저 감동시키며 자신의 작품 성격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잔 올린의 소설을 읽고 찰리 카우프만이 상상으로 재구성한 가상의 설정 일 가능성도 있다. 수잔 올린이나 찰리 카우프만 모두 자신들의 무기력이나 지독한 자의식, 혹은 ‘열정 없음’에 대한 보상으로서 각각의 대상에게 자신들에 결핍된 요소들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명난초가 헛것이고 환상일지라도 그것을 찾기 위해 ‘늪’을 헤맬 줄 아는 집념과 의지는 그 자체로 소중하며 귀하다는 점을 영화와 소설은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난초가 환상이라면 사람들은 헛꿈꾸며 헤매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인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사람을 미치게 하는 그것을 보고 싶다.”(수잔 올린, 00:27:24)

“그 순간 나는 내가 유명난초를 못 봐도 괜찮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에 실망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그것은 오히려 내가 보고 싶어 하는 무언가로 영원히 남아 있을 수 있을 것이다.”⁹⁾

이는 영화의 주제를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소설 〈난초도둑〉을 각색하려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난관을 보여주는 영화 〈어댑테이션〉에서 주인공 찰리 카우프만에게 ‘흡족할만한 글(이야기)’은 결국 ‘유명난초’같이 환상에 불과한 것일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글을 쓰는 이들은 이를테면 난초를 찾는 꿈과 열정을 갖고 있지만 결국 좌절과 망실감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유명난초’는 환상 속에서 꿈을 찾아 헤매는 창작자의 숙명을 암시하는 일종의 은유가 된다.

이는 소설 〈난초도둑〉의 다음과 같은 대목에서 암시하는 바와 같다.

대개의 경우, 난초를 그토록 숭배하고 사랑하는 심리의 원천은 아마도 채취 과정의 어려움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난초 채취는 대체로 열병의 위험이 도사

9) 수잔 올린, 위의 책, 421쪽.

리고 있는 늑지나, 난초 수집가를 죽이려고 노리거나 심지어 잡아먹으려 들지도 모르는 험악한 원주민들이 우글거리는 자생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¹⁰⁾

글을 쓰고자 하는 이들이 이를테면 유명난초를 찾는 채집가라고 한다면 그들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다름 아닌 그 채취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것이다. 글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글쓰기를 한다는 역설적인 의미다. 이야기를 찾는 소설가나 시나리오 작가에게는 ‘좋은 이야기’를 채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그런 이야기에 집착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4. 인물 관계와 설정의 의미

영화는 인물면에서 흥미로운 설정들을 보인다. 우선 찰리와 도널드의 전혀 성격이 다른 쌍둥이 설정이 그렇고, 기자이면서 소설가인 수잔 올린의 직업적 설정 역시 그렇다. 실제적인 사건과 정보 전달 중심의 글쓰기를 해야 하는 기자이면서 허구와 상상의 글쓰기를 행하는 소설가라는 이중적 성격의 설정이라는 점에서 그렇다.¹¹⁾ 그리고 존 라로슈 역시 복제를 통해 희귀난초들의 생명 연장을 꿈꾼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해볼 만하다.¹²⁾ 글쓰기를 일종의 창조적(생산적) 행위라고 볼 수

10) 수잔 올린, 위의 책, 96쪽.

11) 이는 물론 그녀의 <난초도둑>이 논픽션 소설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논픽션 소설은 실존 인물과 실제 있었던 사건을 극적인 소설 기법으로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양면성과 중첩성을 보이게 마련이다.

12) 소설 <난초도둑>에서 존 라로슈는 단순한 탐욕가나 탈법자가 아니라 나름의 자존감과 목적의식을 갖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는 복제 작업을 통해 희귀종 유명난초를 많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작은 창조자의 모습”(수잔 올린, 위의 책, 424쪽)을 꿈꾼다.

있다면 찰리, 도널드, 수잔의 글쓰기와 그의 작업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4-1. 찰리 카우프만과 도널드 카우프만

쌍둥이 형 찰리 카우프만과 동생 도널드 카우프만의 성격은 극히 대조적이다. 도널드는 쾌활하며 사교적이고 자유분방하다. 원작에 대한 충실하고 진지한 각색을 원하는 찰리와 원작을 벗어나 재미있고 가벼운 글쓰기를 원하는 도널드는 글쓰기의 두 유형을 대신한다. 찰리는 사색적이며 자의식 강하며 글을 못 써 전전긍긍하는 데 반해 도널드는 거침없고 대담하게 자신이 원하는 이야기를 써내려간다.

글을 써가는 방식보다 그들이 쓰는 글 자체의 성격에서 차이는 더 분명하다. 형 찰리는 “총 쏘고 자동차로 추격하고 역경을 극복하고 어찌구 저찌구 하는, 섹스장면이 있는 장면들을 싫어” 하며 “마약거래 같은 너무 뻔한” 이야기는 빼고 “인공조미료 없는”(00:05:48) 영화를 추구하지만, 동생 도널드는 흥행영화의 ‘관습과 규칙’에 충실하면서 “하나만 터져주면 돈을 굶어”(00:10:34) 모을 수 있다고 기대에 차 있다.¹³⁾ 찰리는 ‘꽃의 경이로움’처럼 아름답고 우아한 예술적 세계를 영화에서 만들어 내려 하지만, 도널드는 대중들의 폭발적 인기와 상업적인 성공을 기대할 뿐이다.

영화 속 찰리와 도널드는 영화 〈어댑테이션〉의 실제작가 찰리 카우프만의 분열적 설정 인물들로 어렵지 않게 해석하게 된다. 즉 예술적 성취에 대한 욕망과 상업적 흥행에 대한 욕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번민하는 작가 찰리 카우프만의 분열적 설정이라는 것이다. 이는 예술창작가로서

13) 영화제작사나 찰리의 에이전트 모두 “작가와 존 라로슈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도널드와 동질적이다.

자의식이 강한 형 찰리의 모습과 현실
에의 속물적 성공에 편입하려는 동생
도널드의 모습에서 효과적으로 대치되
어 있다. 영화는 이들의 성격을 생각해
잡겨 방황하듯 방안을 어슬렁거리는
찰리와 자유분방하고 거리낌 없이 지



<그림 3>

내는 도널드의 모습 등을 통해 시각적으로 대비시킨다.(<그림 3> 참고)

영화는 이처럼, 자기만의 예술 세계와 대중적인 인기 사이에서 갈등하는 작가들의 고민, 혹은 그들의 이중적 욕망을 쌍둥이 형제의 대비적 설정을 통해 보여준다. 마침, 영화 속에서 도널드는 찰리에게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영화 <The Three>의 이야기를 자랑하듯 들려주는데 그 이야기는 일인 삼역의 '다중인격자'가 연쇄살인을 저지른다는 내용이다. 범인과 경찰과 인질이 실은 한 인물이라는 이 다중인격자의 이야기는 다름 아닌 '이중 분열'되어 있는 실제작가 찰리 카우프만의 정황을 담아내는 '미장아빔'¹⁴⁾적 소재가 된다.

요컨대 찰리는 글 쓰는 이들의 이상적 자아를, 도널드는 그들의 현실적 자아를 반영한다.¹⁵⁾ 도널드는 이를테면 그들의 내밀한 욕망, 즉 대중의 취향을 자극하고 인기를 얻을 수 있는 흥행작을 쓰고 싶어하는 욕망의 대리

14) 미장아빔(mise en abyme)은 '십연에 놓다'라는 뜻으로, 영화 속 영화, 그림 속 그림, 사진 속 사진처럼 담화 속에 유사한 또 다른 담화가 놓여 있는 구조를 말한다. 영화 속 영화의 스토리가 영화 자체의 구조나 주제를 반영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박영욱, 『의미와 무의미의 경계에서』, 김영사, 2009, 106쪽 참고)

15) 이는 다음과 같은 해석과도 연관된다. "도널드(현실)가 죽기 때문에 찰리(이상)의 판정승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도널드가 죽은 후의 찰리는 예전의 찰리와 달리 덜 소심하고 자신감을 얻고 사랑을 쟁취하고 시나리오도 완성해내기 때문에 (현실과 이상이 조화를 이룬) 아예 새로운 인물이라고 봐야할 것 같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ewyearsday_&logNo=50151312850.)

인이다. 모두 실제작가 찰리 카우프만의 ‘분열된 자아라 할 만하다.

이와 관련하여 수잔 올린과 존 라로슈 사이의 비밀을 밝혀낼 단서를 찰리가 아닌 도널드가 찾아낸다는 설정 역시 흥미롭다. 원작에 매달려 있는 찰리가 아니라 원작에서 자유로운 도널드였기에 수잔과 존의 관계를 소설 〈난초도둑〉과는 전혀 다르게 끌고 갈 수 있었던 것이다. 도널드가 찰리의 또다른 자아라고 한다면, 찰리는 진중한 원작에 충실하고자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음모와 비밀이 숨어있는 자극적인 이야기로 바꾸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해보게 하는 설정이다.

영화 〈어댑테이션〉을 광고하는 ‘쌍둥이 천재가 만들어내는 하나의 사건, 두 개의 상상, 세 가지 결말’이라는 문구는 따라서 다음처럼 해석할 수 있다. 수잔 올린이 내놓은 하나의 소설에 대한 찰리 카우프만과 도널드 카우프만의 각각의 상상, 이에 따른 세 가지의 이야기라는 의미, 즉 광고문구 속의 ‘두 개의 상상’이란 찰리와 도널드가 행하는 각각의 각색 이야기라는 것이다. 요컨대 원작 하나에 대한 상반된 ‘고쳐/바꿔 쓰기’의 의미로 풀어보게 된다.

4-2. 수잔 올린과 존 라로슈

수잔 올린과 존 라로슈의 관계는 일차적으로는 소설가와 그가 쓰는 소설의 모델이다. 존 라로슈는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잃고 아내에게 이혼 당하고 전재산이탈 수 있는 종묘원마저 태풍으로 잃어버린 불운의 사나이다. 그런 시련 속에서도 난초를 향하는 그의 열정과 집념에 수잔 올린은 매료될 당한다. 존 라로슈가 수잔 올린에게 꽃의 세계를 설명하면서 들려주는, “곤충들은 저 꽃이다 싶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저 꽃으로 간다.”(00:24:42)는 말은 다름 아닌 존 라로슈 자신에 대한 해설이 된

다. 수잔 올린은 그를 통해 자신에게 결핍된 열정을 보게 되고 더욱 그에게 빠져든다.

작가로서의 수잔 올린은 “소설보다 더 흥미진진한 현실과 접하게 되면서 독자들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¹⁶⁾ 있다. 존 라로슈의 삶을 접하면서 그녀 역시 “열정적으로 글쓰기 작업에 빠진”¹⁷⁾ 것이다. 이렇듯 영화에서 존 라로슈는 수잔 올린의 욕망이 투영된 인물로 그려진다. 수잔 올린은 자신의 결핍 요소를 보상할 수 있는 인물 존 라로슈를 주인공 삼아 이야기로 재현해놓는다. 영화 속 수잔 올린의 다음과 같은 대사는 이를 잘 보여준다.

“대부분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지만 그걸 감행할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 활력을 가진 그가 내 옆에 있는 게 정말 엄청난 힘이 되고 매료되는 듯하다.”(01:00:26)

원작(원문)을 ‘바꿔 쓴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위험한 일이다. 찰리 카우프만은 극중에서 “각색이라 가닥이 안 잡혀. 차라리 창작이 수월하겠단다.”(00:48:26)며 푸념한다. 그는 원작자 수잔 올린을 상상하며 “당신 실망할까봐, 아름다운 책을 망칠까봐, 잠이 안 와.”(00:54:17)하며 불안과 초조에 싸인다.¹⁸⁾ 찰리의 여자친구 아멜리아는 그에게 “당신도 멋있어질 수 있다. 다 뜯어 고치는 거야.”(00:12:45)라고 말한다. 그녀의 말은 정작 찰리의 외모에 대한 것이었지만, 글쓰기를 고민하는 찰리의 입장에서, 변화를 준다면, 즉 ‘바꿔 쓴다’면 ‘당신’의 글도 더 괜찮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물론 어떠한 변화를 주느냐가 문제다. ‘바꿔/고

16) 수잔 올린, 위의 책, 423쪽.

17) 수잔 올린, 위의 책, 424쪽.

18) 이때, 찰리의 상상 속에서 수잔은 그에게 “여러 가지를 쓰지 말고, 딱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거야. 가장 열정이 느껴지는 것만.”(00:54:46)이라고 조언한다. 물론 이것은 찰리의 상상이라는 점에서 찰리 자신 스스로에게 건네는 다짐 내지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서도 영화가 ‘열정’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쳐 쓰기' 위해서는 “다 뜯어 고치는” 작업의 고충과 힘겨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4-3. 찰리 카우프만과 수잔 올린

찰리는 머리술이 없고 뚱뚱하고 배가 나온 자신의 외모를 스스로 비하하며 남의 눈치를 살피는 소심하고 자의식 강한 인물이다. 여자친구에게도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땀만 흘리며 속으로만 애태우는 수줍음 많은 성격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짧은 인생의 매순간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물이다. 무엇보다 작가로서 상업적·오락적 영화(이야기)를 거부하면서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지키려고 한다.

그런데 동생이 통속적인 이야기로 자신보다 더 성공하자 자괴감에 빠지며 대중취향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된다. 세속적인 성공과 대중적인 인기,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고 싶은 인간으로서의 욕망을 그 역시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수잔 올린과 존 라로슈의 비밀을 깨기 위해 그들의 뒤를 쫓던 중 동생이 죽게 되고 찰리는 ‘행복은 주변의 시선이 아니라 개인의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는다.¹⁹⁾ 이런 점에서 영화는 사회(인생)에 적응하지 못했던 찰리의 사회(인생) 적응기라고 볼 수 있다. 영화의 제목 Adaptation을 ‘적응’으로 해석하게 되는 대목이다. 이러한 해석은 영화 속 존 라로슈의 대사, “식물이 왜 좋은 줄 아느냐? 늘 변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줄 안다.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다.”(00:35:46)라는 말을 통해서도 암시적으로 드러난다. 상업주의가 지배하는 영화계의 환경에 적응해야만 시나리오 작가로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속뜻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19) 찰리 카우프만의 영화 속 대사는 “남들이 뭐라든 신경쓸 것 없지. 난 사랑한 만큼 행복하니까.”(01:46:17)이다.

영화 초반, 소심하고 우울한 성격의 찰리 카우프만은 원작자 수잔 올린의 소설을 읽으면서 그녀에게 매력을 느낀다. 각색 과정에서 그의 고민은 그녀의 매력 때문에 더 심해진다. 지적인 외모뿐만 아니라 ‘열정’을 쫓아 대상인 모델에 집중하는 그녀의 글쓰기가 그로 하여금 그 글에 ‘변형’을 가하는 데 주저하게 만든다. 원작(원문)을 새로운 이야기로 만들어내야 하는 각색 작업의 속성상 원작에 대한 부담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각색자들이 갖게 마련인 원작(원작자)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과 정신적 구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는 영화 후반에는 아예 수잔 올린과 존 라로슈에게 육체적인 결박을 당하고 만다. 그들의 비밀을 깨기 위해 추격하던 중 붙잡히고 마침내는 물리적으로 몸을 구속당하게 된다. 전자가 심리적이고 간접적인 억압이었다면 이는 육체적이고 직접적인 구속인 셈이다. 모두 각색과 원작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흥미로운 설정이라 할 수 있다.

결박당한 찰리는 동생 도널드의 도움으로 탈출하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도널드는 죽음을 당하고 만다. 바로 앞선 장면에서 찰리와 도널드는 수잔과 라로슈의 추격을 피해 숨어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과거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서로에게 미안함을 전하기도 하는 등 형제로서의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는다. 따라서 이어지는 도널드의 죽음은 회복된 형제에의 관점에서 형 찰리를 대신하는 희생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킨다.

영화의 마지막에 이르러 찰리는 여자친구에게 사랑을 당당히 고백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나름의 목표를 품게 되는 용기와 자신감을 지닌 인물로 그려진다. 원작(자)에 대한 구속과 그로부터의 탈출, 자유분방한 동생의 죽음을 겪으면서 영화의 주인공 찰리 카우프만은 성공적인 변화를, 영화 속 설정을 비유로 든다면 악어가 득실거리는 ‘늪’의 세계에 적응하는 변화를 보여준다.

5. 이야기의 전환과 소설 〈난초도둑〉

영화는 중반 이전까지 찰리의 내적 갈등 중심으로 전개된다. 한 시나리오 작가가 갖는 심리적 강박과 고민이 외적 사건의 역동적인 연출 없이 다소 지루하게 전개되면서 영화는 중반 이전까지 다분히 사유적이면서 철학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색적이면서도 미묘한 영화의 이야기는 중반 이후 그 성격을 완전히 달리 하게 된다.

중반 이후, 즉 찰리가 도널드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결국 도널드가 추천하는 로버트 맥키의 강연을 찾아가 그로부터 직접 각색을 위한 조언들을 들은 뒤부터 영화는 오락적·상업적 성격의 이야기로 돌변한다.²⁰⁾ 인물들 간에 본격적인 충돌과 대립, 갈등이 이어지면서 그동안 정적이고 사유적이던 이야기는 동적이면서 다소 부박(浮薄)한 양상으로 변모하게 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영화의 이러한 전환 양상이 바로 로버트 맥키가 찰리에게 들려주는 조언 그대로를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영화에 드라마를 넣고, 마지막엔 감동을 심되 황당한 결말은 금물이며, 인물을 바꾸면서 스스로 변하게 하라.”는 요지의 맥키의 조언이 영화 〈어댑테이션〉의 중반 이후의 서사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찰리와 도널드 형제가 수잔과 존 라로슈 사이의 비밀을 밝혀가는 과정으로 그려진다. 도널드는 수잔을 만난 뒤 그녀로부터 이상한 점을 눈치 채고 그녀와 존 라로슈 사이에 모종의 비밀이 있음을 알게 된다. 난초에 대한 존 라로슈의 열정은 실은 마약 재료를 얻기 위한 광기어린 집착에 다름 아니며, 수잔 역시 존 라로슈의 유혹으

20) 김혜리는 “〈어댑테이션〉은 작가 찰리 카우프만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영화의 시나리오 쓰기에 어떻게 실패했는가에 관해 찰리 카우프만이 쓴 시나리오로 만든 영화”라고 말한다.(김혜리, 『씨네21』, 2003.5.7)

로 말미암아 점차 마약과 퇴폐의 세계로 몰들어 가고 있었던 상태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찰리와 도널드의 호기심은 그들의 행적을 쫓게 만들고, 긴박한 추격 과정에서 총격과 자동차 사고로 도널드와 존 라로슈는 죽음을 맞게 된다.

이처럼 영화의 중반 이후는 격렬하고 박진감 넘치는 이른바 할리우드 스타일의 이야기로 전개된다. 영화 초반 보이던 찰리 카우프만이나 수잔 올린의 진지한 집필 모습이나 소설 <난초도둑>의 내용을 시각화한 장면은 영화 중반 이후로는 찾아볼 수 없으며, 마약, 섹스, 총격, 자동차 추격, 죽음, 눈물 등의 이야기 소재들이 이어지면서 할리우드 장르의 전형적인 관습을 답습하는 양상을 띤다. 이는 애초에, 예술주의 작가로서 자존심을 지키려 하던 형 찰리 카우프만으로서는 마음에 들지 않아 했고, 반면 ‘한탕’을 노리던 동생 도널드 카우프만으로서는 기꺼이 선호하던 지극히 오락성 짙은 흥행 본위의 이야기다.

따라서 소설 <난초도둑>도 영화의 전개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 하게 된다. 즉 영화 초반에는 그 내용의 일부가 부분적으로 영상화되면서 마치 영화의 원작처럼 기능하는 듯하지만 영화의 중반 이후로는 이야기 속의 일개 소품에 머물러 있게 된다. 대신 그 작가인 수잔 올린이 직접 이야기에 개입하면서 사건들을 주모하는 주인공으로 부각된다. 이는 마치 영화 <어댑테이션>이 애초에는 소설 <난초도둑>을 각색하여 그 이야기를 그대로 영상화할 요량이었으나 그 실제 각색 작업에서 결국에는 전혀 엉뚱하면서도 새로운 이야기로 변해버린 듯한 인상으로 다가온다. 요컨대 <어댑테이션>은 영화 초반의 사유적이며 자의식 강한 성격과는 달리 상업영화의 일반적인 관습과 규칙에 순응하는 양상의 이야기로 마무리된다.

이러한 영화의 급격한 전환은 소설 <난초도둑>에 대한 ‘다시 쓰기’이

자 주인공 찰리 카우프만에 대한 ‘바뀌 쓰기’이다. 영화는 소설 〈난초도둑〉을 한 인물에 대한 진지한 논픽션이라는 원래의 의미에서 저자와 주인공의 추악한 집착이 낳은 불순한 산물이라는 상업영화의 통속적 소재로 돌려놓고 있으며, 주인공 찰리의 변화 역시 순수한 한 작가의 상업주의·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적응/순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화의 전환을 통해 감독 스파이크 존즈(혹은 각본가 찰리 카우프만)는 스스로 자신의 강박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인다. 또는 헐리우드 영화에 대해 풍자를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원작의 주제와 무게를 지키지 못하고 상업주의(자본주의)를 좇는 각색 행위, 혹은 영화/이야기 세계에 대한 스스로의 풍자이며 자기고백인 셈이다.²¹⁾

6. 나오는 말

영화 〈어댑테이션〉은 시나리오 작가의 고민을 보여주는 영화다. 그러나 주인공 찰리 카우프만을 비롯한 여러 인물들의 설정이나 이야기의 전개 구도는 흥미로운 해석들을 담고 있다. 쌍둥이 형제인 찰리 카우프만과 도널드 카우프만의 대비적 성격 설정도 그렇거니와 찰리 카우프만과 수잔 올린의 관계, 수잔 올린과 존 라로슈의 관계도 글을 쓰는 작가와 특정 모델, 혹은 취재의 대상이 어떠한 관계에 있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렇다.

찰리는 소설의 시나리오 각색 과정에서 결국 스스로의 변화를 찾게

21) 김혜리는 “가장 희한하고 담대하며 독창적인 ‘각색’영화”라고 하면서 “찰리 카우프만의 ‘각색’은 매체의 전환이 아니라 원작에서 동기를 취해 텍스트를 확장하는 작업에 가까워 보인다.”고 평한다.(김혜리, 위의 글)

되는데, 이는 곧 자신에 대한 ‘각색’인 셈이다. 세상과 사회에 대한 적응, 그리고 변화, 그것이 이 영화가 보여주는 ‘어댑테이션’이다. 찰리의 입장으로 좁혀 말한다면, 도저히 이야기로 각색하기 어려운 원작을 만났을 때, 혹은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작가로서 취할 수 있는 하나의 적응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 이 영화라고 볼 수 있다.

영화 초반 찰리는 원작의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원작 그대로의 맛을 살리고 무게를 지키기 위한 그의 노력은 오히려 각색 작업을 방해하고 그의 글쓰기를 억압한다. 원작에서 벗어나고 싶은 찰리의 무의식은 성격이 전혀 다른 쌍둥이 동생 도널드로 형상화된다. 도널드는 원작으로부터의 탈출과 자유를 욕망하는 찰리의 또다른 자아다. 도널드의 도움과 희생으로 찰리는 결국 원작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리하여 쓰여진 새로운 이야기가 영화 <어댑테이션>이다. 이로써 영화 <어댑테이션>은 소설 <난초도둑>에서 자유롭게 벗어나 있게 된다.

영화 <어댑테이션>은 각색(고쳐/바꿔 쓰기)의 과정이 일종의 싸움임을 보여준다. 자신을 유혹하거나 구속하는 것들과의 싸움을 견뎌야 하고, 자신의 ‘분리’를 겪어야 하며 그 또다른 자아(도널드로 상징되는)를 아프게 ‘지워야’ 하는 행위이다. 어휘와 문법적인 오류들을 수정하거나 단순히 매체만을 옮기는 간단한 작업일 수는 없는 까닭이다.

난초 채취와 채집의 과정이 험난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난초에 대한 애정과 집착이 크듯이, 난관을 뚫고 갈등을 이겨내고 극적으로 전환해 가는 이야기의 결말에서 즐거움을 맛보듯이, 문제를 대면하고 고민하며 해결해 나가는 과정 자체 역시 희열을 가져다준다. 새로운 글을 쓰고 이야기를 만드는 것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음을 영화 <어댑테이션>은 흥미롭게 보여준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스파이크 존즈(감독), 〈어댑테이션〉, 2002.
수잔 올린, 김영신·이소영 역, 〈난초도둑〉(원제 'The Orchid Thief'), 현대문학, 2003.

2. 논문과 단행본, 기타 자료

- 강현구, 『대중문화와 문학』, 보고서, 2004.
김정은, 『대중문화 읽기와 비평적 글쓰기』, 민미디어, 2003.
김주연, 『교양 없는 시대의 교양으로서의 글쓰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34,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7, 247-271쪽.
김중철, 『소설을 찾는 영화, 영화를 찾는 소설』, 도서출판 월인, 2008.
김중철, 『영화를 통해 본 '쓰기'의 의미』, 『한국민족문화』38집,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0. 11, 391-408쪽.
김혜리, 『영화 '어댑테이션' 리뷰』, 『씨네 21』, 2003.5.7.
나병철, 『영화와 소설의 시점과 이미지』, 소명출판, 2009.
이상길·이설희·김지윤, 『스크린 테크놀로지의 다양화와 영화소비 경험의 변화』, 『언론과 사회』16권 2호, 성곡언론문화재단, 2008, 148-189쪽.
문학과영상서사연구회, 『영화? 영화! 문학의 시각으로 본 영화』, 글누림, 2006.
박영옥, 『의미와 무의미의 경계에서』, 김영사, 2009.
랄프 슈넬, 강호진 외 역, 『미디어미학』, 이론과실천, 2005.
조셉 보그스, 이용관 역, 『영화보기와 영화읽기』, 제3문화사, 1995.
로버트 리처드슨, 이형식 역, 『영화와 문학』, 동문선, 2000.
로버트 맥키, 고영범,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 황금가지, 2002.
최예정·김성룡, 『스토리텔링과 내러티브』, 글누림, 2005.
하유상, 『시나리오의 이론과 실제』, 성문각, 1993.
<http://blog.yes24.com/blog/blogmain.aspx?blogid=stainboy81&artseqno=7187034>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ewyearsday_&logNo=50151312850

Abstract

The Problem of 'Adaptation' and 'Writing' in *Adaptation*

Kim, Joong-Chul(Anyang University)

This thesis looks into the problem of 'Adaptation' and 'writing' in *Adaptation*(2002) directed by Spike Jonze and written the play by Charlie Kaufman. This film make us think the meaning of writing as a transference from one work to the other.

The story of this film is focusing on the main character's(Charlie Kaufman) alteration while trying to write a screenplay. The screenplay is all adaptation of *The Orchid Thief* written by Susan Orlean. But *The Orchid Thief* does not have a dramatic narrative item and conflicts between the characters, but it has a lot of informations about orchid. Therefore, Charlie Kaufman has difficulties in doing an adaptation.

The other side, his twin younger brother Donald Kaufman writes and behaves freely without his anxiety. Donald Kaufman writes a sceneply for an entertaining movie, and makes a hit in the amusement industry. Twin brothers Charlie and Donald are the double selves of a writer. They stand as a symbol of writer's desires. A writer has two desires of an art work and a popular work. Donald is the other self of the real writer, Charlie Kaufma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riginal author, Susan Orlean and the model of *The Orchid Thief*, John Laroche is interesting. They symbolize an author and a subject matter individually. Susan has a great longing for John's fervor. But she doesn't defend her own work of the story because of infatuating with the model of the story.

Adaptation has an antipodea phase in a story. The first half of that film has a speculative and serious story, but the latter half has a exciting and entertaining story. This aspect of *Adaptation* explains the distress of writing or adaption itself. Writing or reforming composition is a kind of quarrel.

(Key Words : *Adaptation*, *The Orchid Thief*, Charlie Kaufman, writing, adaptation, screenplay writer, visualization of novel, media transference, reality, writer's desire)

164 대중서사연구 제29호

투고일 : 2013년 4월 29일 투고

심사일 : 2013년 5월 13~24일 심사

수정보완일 : 2013년 6월 3일 수정제출

게재확정일 : 2013년 6월 10일 게재확정